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

(계1:9~20)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밧모 섬에 유배되어 주일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일곱 교회, 당신이 목회하던 교회와 알고 있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아, 오늘 교회가 모여서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그 쓸쓸하고 그립고 애틋한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드디어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계시 속에서 보는 환상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기록하는데, 주로 승천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계시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은,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주로 승천해 하늘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 계시의 내용 끝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일곱별의 비밀이고 일곱 금 촛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시기를 일곱별이 뭐냐 하면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사자고 천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안겔로이'라고 나오는데 '안겔로스' 천사라는 말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천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키워드에요.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
근데 일곱별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범 교회적인 세계를 총칭하는 얘기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일곱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가능성, 영적인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교회 전체를 일컫기 위해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써서 일곱 교회라고 말하는데, 촛대가 교회로 상징이 되고 비유가 되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에게 보내는 사자를 오른 손에 들고 계시는 일곱별로 비유하시는데, '일곱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이게 무슨 비밀일까요?
지금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일곱별의 비밀이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상징적이면서도 또한 비유적입니다.

우선 교회가 촛대로 비유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봅니다.
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기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구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첨단 기구고 가장 비싼 기구입니다.
첨단 방법인 거예요, 촛대라고 하는 것은 횃불보다 더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 촛대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어두움을 밝히는 금 촛대인가?
근데 또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교회의 사자가 별로 비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요즘으로 말하는 천체물리학적으로 규정되는 별의 정의에 의해서 별의 존재의미가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보임으로써 별의 존재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별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깜깜할수록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촛대같이 인공적으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명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별은 안 보입니다.
근데 교회로 비유되고 있는 금 촛대는 어두움을 인공적으로 밝히는 그런 기구로서 교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별은 어두워야 보이는데, 그 별들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금 촛대라고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충하는 모순되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회가 왜 금 촛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다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마치 화가가 화폭에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의 캔버스가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다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커튼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그게 진정한 빛의 세계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자연 세계 속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들의 물리학적인 빛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빛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참 빛은 하나님이세요, 사도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의 커튼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어두움 속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나타난 변화가 뭐죠?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면 모든 물건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담에게 주어지고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아담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건인지 나쁜 사건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의 주체이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

쁨 가운데 살았던 것이 에덴동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굳이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네 자체 안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 얼마든지 네 스스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너 자신에게 유익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시간과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커튼 안에 갇혀있는 어둠 속의 인간들이 스스로 인공의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만들어낸 인공의 빛이 뭡니까?
돈이 많으면 좋다,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것이다,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이 인생이 잘되는 것이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교회를 짓고 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해서 이걸 다 메꿔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그 돈을 다 갚을 수 없어서 교회를 내놓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빛들, 무엇이 옳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내게 해롭다, 이런 판단의 기준과 신념의 체계들, 성공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짜 빛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짜 빛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시공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통 가짜 빛이에요.
가짜 빛이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야 좋다'라고 하는 그 빛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었을 때는 실패한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친구는 나한테 유익한 친구고 돈이 없는 친구는 나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장가를 가도 돈이 많은 처가로 장가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빛을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온통 가짜 빛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커튼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촛대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가치를 같이 따라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님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신념체계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많은 숫자의 교인이 있어야 된다.
사도들 중에서 많은 숫자를 염두에 두고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오직 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만나는 단 한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를 과제로 갖고 살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됨으로써 그 교회를 이끌고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지, 많은 숫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자체가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마귀에 의해서 시작된 가짜의 빛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촛대가 옮겨졌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촛대가 옮겨진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 많잖아요, 최고의 숫자를 자랑하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러잖습니까?
맨~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가톨릭이나 불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곱별의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일곱별을 일곱 사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자가 천사라는 뜻인데 도대체 우리는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천사라는 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들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천사가 교회에 나타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는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많아요.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또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또 뭐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를 이끌어 가는 그 옛날의 감독이나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들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느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단 한 가지 천사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단을 왜 별로 비유했을까?
말씀드린 대로에요.

지금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공간 바깥에 있는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받아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그러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드러내줘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딱 보니까, 전혀 돈을 안 쫓아가거든요? 이게 빛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돈을 쫓아가지 않을까? 왜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적은 숫자를 놓고 목회를 하는데도 왜 행복할까?'
이게 빛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별을 봐야 돼요.
별이 보이려면 인공의 빛들이 다 꺼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일곱별의 비밀이라고 주님께서 지칭하신 내용입니다.
일곱별의 비밀!
이게 왜 비밀입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교회 밖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자체를 꺼버리라고 합니다.
왜 꺼요? 돈이 많이 있는 게 인생이 잘된 것이라는 가짜 빛 속에 있으니까 그 빛을 꺼버리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일등하기 위해 뛰어가는데, 일등 하겠다는 욕망과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꿈을 다 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교회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캔버스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계속 가지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촛대가 옮겨진 곳이지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얘깁니다.

희망도 끄고 꿈도 끄고 비전도 제거하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계발서도 읽지 말고, 읽고 싶으면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신 책만 읽으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면,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이렇게 다 꺼야 별이 보여요.
이 별이 뭐에요?
사자에요, 주님이 보내신 사자는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에게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마음이 가고 주님을 마음이 보려고 하면 마음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사탄이 만들어놓은 가짜 빛들이 딱 꺼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별을 보려면 강남 한복판 뱅뱅 사거리를 벗어나서 경기도 광주 어디 숲속이라도 들어가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다 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게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보는 분이 진짜 승천해 계신 주님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해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오늘 묘사해주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온 로마제국, 그러니까 전 세계죠, 로마제국 안에 있는 자들이 느낄 때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지금 밧모 섬에 유배돼서 와있는 이 사도요한의 마음속과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횡포와 권력과 잔악함이 마음 가득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밀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를 일컫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소속이라는 얘기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제국 판도 내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상관없이 주님의 권속이라는 얘깁니다.
그처럼 내가 주님의 것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따라가고 끌려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깁니까?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이나 왕의 신분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의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유대사회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그러니까 진짜 왕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가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재벌총수가 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같다고 얘기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비록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만, 오점투성이라는 얘기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봅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런데 사실 오점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머리와 털이 희다는 얘기는 아~무런 오점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전혀 오점이 없는 분이고, 눈이 불꽃같다는 얘기는 또 그 주님 앞에서는 어떤 오점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발이 정복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편91편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밟는다는 게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갈렙이 85세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 한 말이 뭐냐 하면, 40년 전 정탐을 하고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바르게 보고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갈렙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제국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을 말하면 그 도미티아누스가 예수님의 발아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얘기는,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구아스 폭포 가까이 가면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소리가 엄청난 것처럼, 도미티아누스가 천하를 호령하거나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획득한 자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천하를 호령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분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무릎을 꿇리고 '도미티아누스! 너 이리와!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심판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다.
모든 선악 판단, 결국 밝음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께서 도미티아누스를 불러서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교인들 각자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인공의 빛들,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의 불빛들, 가치체계와 신념들을 다 끄게 되는 역사가 이 일곱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인공의 빛을 꺼가야 되는 이 과정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일곱별의 비밀을 알게 된다,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는,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과 판단과 모든 것이 다 꺼져야,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고 하는 이 일곱별의 비밀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보다 더 무서워서 사도요한이 그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껴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빛을 끔으로써,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겨나갈 때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늘을 소유하는 자들로서 승리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일곱별의 비밀을 터득한 자들이 됨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금 촛대로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